

社說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산 감치파동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이웃들에게는 먹거리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인간이 사는데 있어 기본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최근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점심을 못 먹는 학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최소한의 보호도 못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업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인가 시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인가 시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 받지 못한 사람, 어두운 곳에서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중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현재 모금된 금액 1천890만원을 37개 학교 189명에게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한 것은 본지 조사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1개월에 20만원씩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조사위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심일만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자고 권유하는 활동을 1년 동안 진행해 왔다.

또 얼마 전에는 본지 주부 명예기자단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여 김치 650여 포기들 관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본지 주부 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가 배추 650여 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삼우석대 김수동 회장과 고은종합전기, 본지 운영위원회가 함께 해주었다. 이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고귀하다.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또한 직접 김장담그기에 나선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주부 명예기자들이 포장된 김치를 들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전달하면서 전달받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 또한 많았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스스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포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기대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안전망 사업은 그 한계가 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데도 어려운 이웃 모두가 혜택을 볼 수는 없다.

본지가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다른 창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목적은 우리 주변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데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자. 그래서 더욱 밝은 포천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郷土원로초대석 ⑰ …… 前 대한노인회 포천지회 감사 楊東春



양 동 춘 전, 대한노인회 포천지회 감사

봉래 양사언 선생의 13대 후손으로 대한노인회 포천지회 감사, 포천향교 장의를 지낸 바 있는 양동춘(75·사진·가산면 정교리)은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전쟁이후 미군 군속으로 근무했으며 이때 영어를 잘 익혀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이후 1961년 가산면 금현5리에 영신학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경로당에 칠판 비치하여 글공부 하자”

를 개설했으나 약학부업 당시 약방을 정리했다.

현재는 정교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양 동의 별명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다. 포천유림에서 지어준 별명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말을 잘해야 하며 글을 많이 배워야 하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림회원들은 양 동이 이같은 강한 성품을 지녔다고 하며 이를 지키다 보니 재산 모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공관유도회 가산면지회장을 7년동안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명예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태권도는 알지만 유학이 무엇인지 유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지적한다.

충신 조복남 선생 정문복원추진위원회 부회장으로 2001년5월 정문이 복원될때까지 양 동의 봉사활동은 빛이 난다.

또 포천문화원 이사로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양 동은 과거 포천문화원의

이사 하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고 강조한다. 포천문화원 이사로서 포천문화를 잘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음도 강조한다.

양 동은 지난 93년부터 2년동안 포천로타리클럽 제6대 회장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그때 실천한 봉사정신으로 지금도 거액의 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군부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성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이 된다. 당시 원근각처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지금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항상 행동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지키는 지성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양 동은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부모도 칭찬을 받지만 자식이 불효하고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면 부모까지 욕을 먹게 된다고 지적한다.

양 동은 포천신문은 포천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다.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포천신문에서 사진으로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다. 또 선거결과도 알려주고 학교소식은 물론 어머니회의 활동 사항도 세세하게 전달하여 주니 너무 고마운 신문이라고 밝혔다.

양 동은 포천신문은 포천의 자랑거리를 많이 알려주는 신문으로 좀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글씨와 한문을 함께 배우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로당에 칠판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포천신문에 나온 이야기도 하고 글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 놀기만 하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도 밤중에 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글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 정 완

대진대학교 교수

Vilfredo pareto(1848~1923)는 ‘엘리트 순환론(circulation)’에서 “정치엘리트가 정권을 잡기 전에 여우형, 정권을 잡으면 사자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치인이 권력을 쥘때 국민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이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완(45·사진)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장관급 자리를 150여개나 신설하여 ‘못 살던 사람들의 한풀이’식 정치와 민주당 분당, 대북특검, 탄핵, 총선패배 등으로 이어지는 실정을 국민들이 이해했으나 더 이상은 안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행정학 박사로서 지방재정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준 하나만 변경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포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생활기반 시설인 의료와 교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외유출규모를 산정하여 경기도와 정부가 조정재원에 지표로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수백억원 이상이 포천시 재정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천시 2만5천여명의 군인을 상주인구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재 수

동성유니테크 대표

지난 20여년간의 영업경력을 바탕으로 순간접착제·면테이프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장재수(사진·48·내촌면 진북리) 동성유니테크 대표는 “어떤 제품건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산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순박한 시골아저씨와 같은 인상에 듬직함이 배어 나오는 장 대표의 얼굴에서 회사의 신용을 읽을 수 있다.

서울에서 한국유니본드라는 회사로 본드와 접착테이프 등을 수입해 영업을 했던 장 대표는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 포천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제조업에 나섰다. 순간접착제와 면테이프를 생산한다.

그러나 순간접착제를 대면에서 수입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낸다. 면 테이프는 장 대표가 심사숙고하여 제작한 공정을 통해 질 높은 면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순간접착제는 선경에서 생산한 적이 있



제시하기도 했다.

장 대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부도를 당하고 다시 재기할 때라며 이제 공기 맑은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강하게 살되 베풀며 살자”를 가훈으로 삼고 살아 온 장 대표는 부인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강한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켜 갈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市長직속 홈페이지 제작 정책 발굴해야” “자문위원회 30분 주제발표 의견 공유해야”

특히 도세징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기준을 재정지립도 등 보다 세밀한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광역제일고를 졸업하고 전 남대학교에서 행정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96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현재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포천이 제2의 고향임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교수는 “포천신문이 그동안 지역사회 소식지 형태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집기사 형태의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언론 등 지역사회 수요층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포천시가 교수를 활용함에 있어 교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렵게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한 회의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와 시간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교수는 포천에 많은 공장은 지역생산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생산량의 50%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교통문제와 환경오염만 포천에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포천시가 보다 탄력적인 시장정책을 위해서는 시장직속 홈페이지를 제작해 정책공모를 수시로 추진하면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구비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연구성과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큰 보상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은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데 가장 애사사항은 역시 영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교수는 각계각층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30분씩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적 시각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내 영혼을 깨끗이 간직하고 싶다”를 좌우명으로 삼아 생각이나 행동자체를 절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김 교수는 지방재정학(박영사,1997)을 저술하고 케인 22의 경제정책(동인,1999), 공공선택론(대영문화사,2005)을 번역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經營哲學 … “품질을 최우선으로” 家訓 … ‘강하게 살되 베풀며 살자’

있으나 타인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성유니테크에는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다. 장 대표가 영업을 도맡아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 업계에서 장 대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장 대표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제품 만족도에서도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언제나 실실하게 신용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렵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장 대표는 포천신문 제322호에 기사화된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하라며 50만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움을 손길을 아끼지 않는 장 대표의 고마운 마음이 아름답게 기록된다.

장 대표는 이 업종에서 상표의장과 실용신안 특허 등 15종 이상의 특허를 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포천신문이 지역사회 의 정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매일 정기모임때마다 1만원씩이라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장 대표 자신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택 시인이 장 대표에게 선물한 ‘터전’이라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푸른 하늘 그 아래 청산강이 있어 바라보고 그 강 언덕 산자락에 사람들이 모여 물나고 빗줄은 곳 터를 잡아 영차영차 집을 짓소 여기영차 힘써 논과 밭을 만들고 철따라 꽃피고 지고 씨뿌려 거두는 것 같이 그게 바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맡겨 살아갈 땅이었더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장 대표를 찾아온다. 회사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이웃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있는 장 대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 장 대표의 어울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바다장사의 애로사항을 읽어주는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장영달 국회의원과 중학교 동창인 장 대표와의 인터뷰 중에도 거래처에서 몇 사람이 방문하고 저녁시간에 만나자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김용택 시인이 쓴 터전과 같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장 대표의 얼굴이 더욱 환해진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금화봉 일대 환경오염 심각

미세먼지 부유물질 등 기준치 크게 초과 석산개발 ... 인근 지역 생태축 단절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던 금화봉 일대 환경성 검토용역(관련기사 본지 8월20일자 15면) 결과 금화봉 일대 환경오염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화봉일대 채석장 환경성 검토 최종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채석면 가용피와 영종면 거사리 채석장단지 일원은 대기질과 소음진동 및 수질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수행한 (주)대경E&C가 지난 3월12일부터 19일까지, 4월14일부터 16일까지, 10월3일부터 5일까지 등 15곳에 대해 3차례 대기질(미세먼지)을 조사한 결과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기준(70 $\mu\text{s}/\text{m}^3/\text{년}$, 150 $\mu\text{s}/\text{m}^3/\text{일}$)을 초과하고 있다.

초과정도 또한 $\mu\text{s}/\text{m}^3$ 기준치 70를 크게 상회하는 $\mu\text{s}/\text{m}^3$ 당417로 조사되었고, 채석장에서 반경 2.5km 이상 떨어진 금주3리 지역에서도 기준치보다 높은 $\mu\text{s}/\text{m}^3$ 당 86으로 조사됐다.

또 수질오염 정도는 지난 3월12

소나무 ‘재선충병’ 非常

전국 확산 포천시 산림조합 대비책 마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 포천시 산림조합(조합장 남궁중)은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발견되면 즉시 채취해 지구 북쪽과 생태축폭 약 1km이상을 완충구역(원형산림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난개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용역조사에서는 금화봉 일대 채석장지구 좌우측에 형성된 생태축(이동통로)은 보존해야 하고 채석장 지구 북쪽과 생태축폭 약 1km이상을 완충구역(원형산림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난개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은 0.610mm 실모양의 충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매개충으로 흡수염할소의 몸에 기생하고 있다 소나무 먹을 먹을 때 나무조직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발병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3249 또는 포천시 산림조합 031-534-7744로 하면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 규 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